

윤리 준법 경영을 제도화하라.

컴플라이언스: 윤리준법 경영의 성공 전략, 개정판, 마틴 비젤만 저/노동래 역,
도서출판 연암사, 2013년 2월

거액의 회계 부정에 따른 투자자 손실과 기업 총수 구속, 군납 비리, 의료업계 리베이트와 불량 장비로 인한 의료 사고, 담합과 뇌물...기업 비리에 대한 국민의 분노 폭발과 정치권의 뒷북 대책 마련. 많이 보고 들어온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들은 컴플라이언스: 윤리 준법 경영의 성공 전략에서 미국의 컴플라이언스 제도 정비의 계기가 된 사건들로 인용된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 요즘 우리나라 뉴스에서 보고 듣는 이야기인 것 같다. 어디서나 기업 비리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비슷하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외양간에 구멍이 뚫려 소를 잃었는데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고서 계속 그 외양간에 소를 키우다 계속 소를 잃는’ 어리석음이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1993년에 부안군 위도에서 서해 카훼리호 전복사고가 일어나 수 백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약 20년 뒤에 이 사고와 판박이인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다. 1999년에 경기도 화성군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유치원생 등 23명이 사망했는데 2014년 경주 마우나 오션리조트 붕괴 사고로 10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부상당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이러한 위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책은 바로 이 주제를 다루는 책이다.

“이 책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통해 윤리 경영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조직, 종교단체, 시민단체와 같은 비영리 조직 관리자가 지속가능한 조직을 경영하기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한다. 또한 기업분석과 투자, 리스크 관리에 관한 올바른 관점과 탁월한 안목을 제시한다. 재벌 대기업, 대형 종교단체들과 시민단체, 지자체를 비롯한 검찰, 경찰, 법원 같은 정부 조직, 그리고 언론의 윤리 문제를 통해 우리 사회 문제를 통찰하게 하고 대안에 대한 영감을 준다. 부패와 비리에 노출된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눈에 알 수 있는 강력하고도 단순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준법지원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다.” (출판사 서평에서 인용함)

윤리 준법 경영이 기업 실적이 도움이 되는가에 관해서는 그 인과 관계에 관해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기업 비리 또는 비윤리적 행위가 발각될 경우 이에 따르는 법적, 재무적, 평판상의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다르다.’,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건 관행이다.’ 등의 태도를 보이거나, 문제가 발생하고 난 뒤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자선 단체 등에 기부금을 납부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비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통해 비리 발생 시 자체적으로 발각하여 시정 노력을 기울이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며, 사법당국이나 감독 당국의 조사 시 적극 협조하는 기업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이 책은 이를 위한 훌륭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